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53호 【주제 제23370호】 주제100 (2011)년 2월 22일 (화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원군사업과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일에서 모범을 보인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군대원호사업에 성실성을 다 하고 사회와 집단을 위해 좋은 일을 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었다.

당의 군사중시사상을 받들고 강령군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원군사업에서 모범을 보이고있다.

인민군대가 있어 사회주의조국이 수호되고 가정의 행복도 담보된다는 것을 명심한 이들은 방선을 굳건히 지켜가는 군인들을 친혈육의 심정으로 돌봐주고 부대의 전투력강화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찾아하였다.

속원군 열두삼천농장 작업반장 박수철과 그의 가정, 평안남도농경리위원회 산하단위 로동자 리정길도 원군사업을 잘하여 병사들이 복무의 나날을 위훈으로 수놓아가도록 적극 고무하였다.

인민생활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릴데 대한 당의 호소를 받들고 고성대홍수산사업소 일군들과

중요원들은 수산물생산과 가공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만경대구역인민병원의 의사 신성일은 반일에국렬사 유자녀로 내세워준 당의 은덕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건설지원에 앞장섬으로써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있다.

주체의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는데 기여할 한마음안고 병상관 작업반장 박희순, 중앙은행 평양시 락발지점 산하단위 소장 김명화, 고려의학과학원 연구사 위재현, 모란지도국 산하단위 로동자 리중이도 6 1 8 건설돌격대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받아 안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앞으로도 인민군대원호사업과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일에 모든것을 바쳐갈 혁명적열의를 넘쳐있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중국외교부 상무부부장일행이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중국외교부 상무부부장일행이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올리신 선물을 장지군

상무부부장이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김일성민족의 위대한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며 계속혁신, 계속전진하자

제 15 차 김정일 화축전 폐막

【평양 2월 21일발 조선중앙통신】 민족회대의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14일이 개막되던 제 15 차 김정일 화축전이 폐막되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천만군민과 진보적인류의 애국과 호모심에 떠날라 아름답게 피어난 수만상의 불멸의 꽃들이 전시된 축전장은 웅변 성황을 이루었다.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과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등 36만여 명이 축전장을 참관하였다.

해의 풍모축하단들,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구 대표와

자부성원들, 주조 여러 나라의 외대표들과 국제기구대표들, 무관단, 경제 및 무역참사단성원들을 비롯한 수많은 해외동포들과 외국순방자들이 축전장을 돌아보고 깊은 감동들을 표시하였다.

폐막식이 21일 김일성화 김정일화전시관에서 진행되었다.

양형성동지와 강능수내각부총리, 관계부문 일군들, 성, 중앙기관 일군들, 인민군군인들,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폐막식에 참가하였다.

배진구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15 본조선인축하단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폐막식은 《김정일장군의 노래》 주악으로 시작되었다.

조선인민군 김성덕소속부대, 최태일소속부대, 김창섭소속부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외무성,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에 특등상 상장이, 총련중앙 상임위원회에 특별상 상장이 수여되었다.

70여개 단위가 최우수상, 우수상 상장을, 수십명의 인민군군인, 근로자, 청소년학생들과 해외동포, 외국인, 화교들이 포로상 상장을 참가증을 받았다.

안동춘분화상이 폐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제 15 차 김정일 화축전이 위인정중의 축전으로 성대히 진행됨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어 아버지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며 절세위인들의 존함으로 빛나는 불멸의 꽃 김정일화와 김정일화를 제일가는 국보로, 민족의 자랑으로 빛내이려는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림일인 신념이고 의지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앞으로도 꽃재배와 보급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교류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태양의 꽃들이 더욱 만발하게 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폐막식은 《불멸의 꽃 축전기》의 주악으로 끝났다.

제1차 김정일 화축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 공업의 잠재력은 대단하며 그것을 잘 동원 이용하면 뜻밖의 일이 없습니까.》

나라의 골지의 철강생산기지 무산관련합기업소와 북방의 대야구까지 김책제철련합기업소를 하나의 협력체로 이어주는 대형장기정광수송선이 자기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며 철강재증산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총합된 자료가 의하면 최근 2년간 수습건설의 새 기술혁신안이 도입되어 대형장기정광수송선의 운반능력이 비약적으로

김책제철련합기업소 관수송사업소에서

높아졌다. 결과 유효에 들어와 지금까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배이상에 달하는 철강광을 수송하는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었다.

몇해전 김책제철련합기업소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기업소에서 정광을 제때에 보장하는 데서 나서는 과업과 임무를 완히 밝혀주시었다.

경에하는 장군님의 현저달같은 심장같이 새기고 한사람같이 펼쳐나선 련합기업소의 관수송사업소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대형장기정광수송선이 더 큰 위력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벌여왔다. 이들은 정광수송능

력을 높이는 중요한 열외의 하나를 기술혁신에서 찾고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가며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렸다. 그리하여 수습건설의 가치있는 새 기술혁신안들을 창안도입하여 현실에서 큰 은을 내게 하였다.

성공에 만족을 모르는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철강재증산의 선행공정을 지켜 나감다 자각을 안고 대형뿔프들의 능력을 종전보다 더욱 높이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수송관에 대한 보수정비사업을 정상적으로 짜고들고 그 운영에서 효율적인 방법을 받아들이는 한편 기대공물을

발전소건설을 적극 다그치고있다

회천 1호발전소건설장에서 발전설비들과 압력축전로들에 대한 조립공사가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수력설비조립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1호발전소의 모든 호기들에 대한 발전기교정조립을 성과적으로 끝낸 기세로 타빈작업날개와 발전기회전조립에서 실적을 올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일단 목표를 내건 다음에는 오늘쫓을하지 말고 그것을 대담하고 패기있게 넘겨 버려야 합니다.》

공동사업에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받들고 원산군민발전소건설에 동원된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물길굴뚝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이들은 높이 세운 1월계획을 1.6배로 넘쳐 수행한 자랑드높이 계속 힘찬 전투를 벌려 현재까지 총공사량의 50% 이상을 해제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나라의 긴장한 전력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대규모수력발전소를 많이 건설하여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발전소건설지휘부에서는 물길굴뚝기공사를 다그쳐 끝내기 위한 단계별목표를 높이

수력설비조립사업소에서

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경에하는 장군님을 여러차례 공사장에 모셨던 영광을 가슴에 안고 회천 1호발전소의 전반적인 설비조립기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발전기교정조립을 짧은 기간에 끝낸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대용량압기기가 들어온데 맞게 그 설치에 위계 높이를 높여놓았다. 그들은 배루를 설치하고 기중기차에 의한 운반방법을 대담하게 받아들여 육중한 변압기를 자기 위치에 옮겨 놓는데 이어 지금 건조작업을 다그치고있다.

설비조립 1직장의 로동자들은 맹각판과 공기판 등 배관작업과 전기선들이기에 련한 작업을 집중하여 짧은 기간에 많은 일감을 해제하였다.

발전소조립기일을 앞당기는데서 자신들이 지닌 일부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젊은이들은 철심틀을 비조립 2직장의 로동자들은 회전자축에 대한 정비와 함께 준비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 성과를 거두었다. 그들은 배루를 설치하고 기중기차에 의한 운반방법을 대담하게 받아들여 육중한 변압기를 자기 위치에 옮겨 놓는데 이어 지금 건조작업을 다그치고있다.

압력축전로조립공사가 힘있게 벌어져 좋은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본사기자 정성일

물길굴뚝기에서 련일 혁신 원산군민발전소건설장에서

세우고 작전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하고있다. 특히 물길굴뚝기공사를 맡은 리단들사이에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여 공사속도와 질을 높이도록 하면서 공사에 필요한 건설자재들을 제때에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을 잘 해나가고있다.

공사의 많은 몫을 맡고있는 물길굴뚝설 1려단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압력조립에 맞는 합리적인 공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매일 맡겨진 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해나가고있다. 평강군중대에서는 공사속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를 굴뚝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

하는데서 찾고 압축기와 착암기판리를 책임적으로 하여 1월 물길굴뚝기공사과제를 계획된 기일보다 훨씬 앞당겨 수행하는 자랑을 떨쳐냈다. 이천군중대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대중의 집체적지혜와 힘을 합쳐 발파효율을 높일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들을 공사에 받아들여 매일 굴진계획을 1.5배이상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고있다.

물길굴뚝크리트리치를 맡은 도급기관 대대에서는 1월에 물길굴뚝상부크리트리치를 끝낸 기세드높이 계속 힘찬 전투를 벌이며 매일 바닥크리트리치

특파기자 신철일



나라의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단천항건설을 본격적으로 다그치고있다
—특혜운성 단천항건설돌격대에서— 김진명 역음

발전소건설을 적극 다그치고있다

특파기자 리성호

대혁신, 대비약의 불길을 지퍼올린 크나큰 믿음과 사랑

안주지구관광협업기업소에 어진 백두산위인들의 경도의 손길

찬란한 태양으로 부르는 당의 전투적 호소가 담겨진 올해공동사실을 피륙는 심장에 받아들인 안주관전적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막장마다에서 대혁신, 대비약의 불길을 새겨쳐 지퍼올리고있다.

석탄이 팽팡 나와야 비료와 섬유도 쏟아지고 전기와 강제도 나온다.

인민경제 선봉부문을 석탄전선을 지켜서 드높은 영예를 깊이 간직하고 한의 석탄이라도 더 캐내기 위해 애국의 열정을 아낌없이 바치고있는 이들의 헌신적인 투쟁으로 하여 편일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안주속도를 창조한 그때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올해전투에서 승리의 맨 앞장에 서자.

불라는 맹세하고 산악같이 일떠선 안주지구관광협업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미더운 모습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절감하게 되는가.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열렬한 믿음과 사랑은 비약과 혁신의 불길을 안아오는 위대한 원동력이라는 진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동지들과 인민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김정일동지의 정치에서 기본특징을 이룬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안주관전적 일군은 길은 백두산위인회의 크나큰 믿음과 은총속에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혁명의 난대마다에서 거창한 위훈을 아로새겨 온 영광스러운 로정으로 빛나고있다.

일찍이 석탄은 공업의 식량이고 검은금이라고 하며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유망한 석탄생산지들을 일떠세워주시러 그러도 마음쓰신 어버이수령님의 헌신적로고와 뜨거운 사랑을 언대와 언대를 이어 전해오는 안주지구관광협업기업소이다.

우리 나라에서 천리마운동이 새 차게 벌어지고있던 주제 50 (1961)년 12월 하순 어느

날이었다. 안주 탄광 (당시)을 두번째로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탄광의 당핵심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오랜 시간에 걸쳐 탄광관리운영과 당위원회사업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하나하나 밝혀주시었다.

그날의 귀중한 가르치심은 불후의 고전적로작 《석탄공업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하여》에 자자구구 새겨져있다.

주제 70 (1981)년 9월 22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에 대한 깊은 추적을 안주시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안주지구관광협업기업소를 또다시 찾아주시었다.

잊지 못할 그날 공업총상검과 탄부들의 가정에도 들리시어 그들의 생활을 친어버이심정으로 보살펴주신 인민의 어버이의 숭고한 모습을 어찌 잊을수 있랴.

어느때에는 너로하진 몸으로 안주관전적의 석탄생산을 늘리기 위한 협의회를 여러차례나 지도하시였으며 인제인가는 수많은 제대군인들을 기업소에 파견해주시고 그들을 위해 평양시의 탁원거리설계도면을 그대로 가져다 훌륭한 살림집들로 건설하도록 하신 우리 수령님이시다.

어버이수령님의 부강조국건설구상을 꽃피우기 위해 불분불휴의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던 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안주관전에 사랑의 자욱을 새기시면서 탄광의 강화발전과 탄부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었다.

새로운 천리마속도, 안주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이곳 로동계급의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고 안주속도를 전국에 일반화하도록 하시어 석탄생산지 비약적으로 높여가게 하는 경애하는 그이의 비범한 명도의 손길.

막강의 탄부들을 늘 생각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기 위해 자신께서 몸소 필요한 자재와

로동보호물자들을 마련하시어 기업소에 보내주시는 뜨거운 그 은정.

인민경제의 선봉부문을 석탄공업발전을 위하여 기술이사는 위대한 선군명장의 끝없는 로고와 열렬한 사랑에 대하여 생각할 때면 두해전 3월의 그 봄날이 못을 추억을 불러온다.

강선에서 지퍼주신 혁명적로고의 불길이 온 나라에 활활 타번지게 하신 위대한 구상을 안주시고 끊임없는 헌신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날 안주지구관광협업기업소를 찾으신다.

꿈결에도 그리던 경애하는 그이를 기쁘게 모신 안주관전적 일군들과 탄부들의 가슴가슴은 무한한 기쁨과 환희로 설레이었다.

기업소연합회와 같이 세워진 영광과 위훈의 나날들을 되새기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안주관전적공공정기회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석탄은 공업의 식량이며 원료이다, 석탄을 많이 생산하여 날로 늘어나는 인민경제 여러 부분의 동력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고 금속공업의 주재료를 실현해나갈수 있다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

기업소에서 탄광의 현대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석탄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는데 대한 문제, 채굴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것과 함께 그 부문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 일군들이 조직정기사업과 경제조직사업을 더욱 짜고들며 종업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릴데 대한 문제...

정경 경애하는 그이께서 이날에 주신 귀중한 가르치심에는 안주관전적을 새로운 혁명적로고의 불길이 새겨쳐 타번지는 위대한 석탄생산지지로 총진군의 앞장에 서시라시는 확고한 결심과 크나큰 기대가 담겨져있다.

마야호로 150일전투의 포성이 울릴 격동의 시각에 탄전을 찾으신 천출명장의 숭고한 의도는 그이께서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안주지구관광협업기업소는 야금공장에서 부부하는 탄광이 되어야 한다고, 석탄은 철저히 주체적인 야금공업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석탄공업의 발전방향을 뚜렷이 밝혀주시었다.

어느덧 시간은 퍼그나 흘렀다. 하지만 우리 장군님의 마음속에 안주의 탄부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뜨겁게 지리잡고있었는지 그때 그들은 다 알수 없었다.

그로부터 얼마후, 전세계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인 5.1절을 맞으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로동자대표를 수도 평양으로 불러주시었다. 그들 가운데는 안주의 탄부들도 있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그들과 함께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을 보신데 이어 축포와 노래를 같이하고 혁명가극 《꽃피는 처녀》 공연을 관람하시었다.

위대한 선군명장의 하늘같은 사랑에 어찌 안주관전적 일군들과 탄부들의 심장이 끊이지 않으며 불길의 정신력이 찬백배로 분출되지 않겠나.

참으로 자애로운 어버이장군님의 크나큰 고무와 따뜻한 은정이 있었기에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 150일전투, 100일전투의 나날들을 영웅적투쟁으로 승리를 누렸으며 당장전 65톤이 되는 지난해에도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기 위한 투쟁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다.

철세위원의 믿음과 사랑을 생명으로 간직하고있는 안주지구관광협업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경애하는 장군님께 결의다짐대로 새 탄광을 적극 개발하여 석탄생산지 불길을 새차게 지퍼올리며 애국의 한결에서 강성대국의 기쁨을 떠받드는 뿌리가 될 불라는 맹세하고 오늘도 전진길을 힘차게 다그치고있다.

떠나시기에 앞서 하신 믿음의 말씀과 더불어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심장속에 암남바탕 새겨졌다.

당에서 합력 도와주겠으니 한번 본때있게 내밀어보아야 하겠습시다!

나는 안주의 탄부들을 믿습시다!

하지만 우리 장군님의 마음속에 안주의 탄부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뜨겁게 지리잡고있었는지 그때 그들은 다 알수 없었다.

그로부터 얼마후, 전세계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인 5.1절을 맞으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로동자대표를 수도 평양으로 불러주시었다. 그들 가운데는 안주의 탄부들도 있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그들과 함께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을 보신데 이어 축포와 노래를 같이하고 혁명가극 《꽃피는 처녀》 공연을 관람하시었다.

위대한 선군명장의 하늘같은 사랑에 어찌 안주관전적 일군들과 탄부들의 심장이 끊이지 않으며 불길의 정신력이 찬백배로 분출되지 않겠나.

참으로 자애로운 어버이장군님의 크나큰 고무와 따뜻한 은정이 있었기에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 150일전투, 100일전투의 나날들을 영웅적투쟁으로 승리를 누렸으며 당장전 65톤이 되는 지난해에도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기 위한 투쟁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다.

철세위원의 믿음과 사랑을 생명으로 간직하고있는 안주지구관광협업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경애하는 장군님께 결의다짐대로 새 탄광을 적극 개발하여 석탄생산지 불길을 새차게 지퍼올리며 애국의 한결에서 강성대국의 기쁨을 떠받드는 뿌리가 될 불라는 맹세하고 오늘도 전진길을 힘차게 다그치고있다.

모진 강추위와 무더위, 폭우와 눈보라를 헤치며 불철주야의 헌신지도를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 따라 혼연일체가 된단대오가 일떠서고 대혁신, 대비약의 불길이 거세차게 타올랐다.

올해공동사실의 이 구절을 새겨보며 우리 근대와 인민은 끊임없는 선군정정을 이어가시며 병사들에게 가슴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모습이 우뚝이 언덕과 한없이 격정을 금치 못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김정일동지는 혁명동지들과 인민들을 무한히 아끼고 사랑합니다.》

어느해 11월 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한 구분대를 현지시찰할 때의 일이다.

이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제일 관심하신 것은 병실에 새로 설치한 침대였다. 그 단로로 말하면 경애하는 그이께서 추운 겨울날 병사들의 군수생활에 자그마한 불편이라도 없게끔 세세한 사랑을 담아 보내주시신 열효율이 높은 새형의 단로였다.

병실에 들어 서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제일 관심이 있는 것이 혼훈이라고 못내 만족하시었다.

이유하여 단로의 우정에 대한 구분대지휘관의 보고를 들으신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단로에 방열기를 달아놓는것이 좋다고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었다.

그런데 이때였다.

그이께서 문득 벽에 붙은 방열기를 주의깊게 살펴보다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시는 것이었다.

일군들은 영문을 몰라 저도 모르게 긴장해졌다.

잠시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해하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방열기를 지퍼처럼 벽에 붙여놓지 말고 침실바닥에 놓으시면서 방열기를 바닥에 놓으시라 하시며 장군님의 잠자리가 더 뜨뜻할수 있다고 다정히 일깨워주시었다.

순간 일군들은 그이의 세심한 사랑에 눈물이 확 달아올랐다.

그것을 매일같이 보아온 지휘관들도 또 여기에 와본 슬한 사랑들도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던것을 어버이장군님께서만은 무심히 보지 않으시고 대변에 방열기를 들어왔을 제일 좋은 자리를 찾아주시었던것이다.

정말 경애하는 그이께서 가르쳐주시는데도 방열기를 합리적으로 다시 설치하면 병사들이 침실을 뜻뜻한 고향집마냥 느끼며 생각하며 일마다 기뻐하리라는 생각에 일군들의 가슴은 더더욱 후회스러웠다.

새로 찾아온 방열기 자리!

등서고급 그 어디에 이런 감동깊은 이야기가 있었나.

자신께서는 대소환의 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머나먼 전진길을 뒤임없이 이어가시면서 병사들의 생활에 대하여 언제나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의 자욱우에 또 하나의 전설같은 이야기가 꽃피었다.

어버이장군님의 사랑의 발자취를 더듬어보며 병사들은 이렇게 심정코 했다.

— 경애하는 장군님은 정녕 우리 병사들의 천어버이시입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중국외교부 상무부부장일행을 만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는 2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장지근 중국외교부 상무부부장과 일행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김성기부상을 비롯 한 위무생 일군들과 류룡재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대사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석상에서 상무부부장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명도밑에 조선인민이 사회주의 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고 말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소부대성원들을 모이게 하고 작전전술적문제들을 토의하시었다.

어떤 성원들은 적들을 당장 습격소속하자고 했고 또 어떤 성원들은 신속히 기동하여 국내공작기무를 수행하자고 하였다.

하나 그 의견들은 현재 조성된 정황을 수습하기 위한 신중한 대책으로 되지 못하였다.

얼마 안되는 기동정찰대들을 소모하는것은 쉬운 일이었지만 그렇게 되면 특별경비대뿐 아니라 수비대까지 밀려들어 추격해올수 있었다. 또 다른 방안대로 소부대가 신속히 기동한다고 해도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진출을 논치엔 날뻐는 도저히 파인이 되어 나갈것은 변한 일이었다.

소부대성원들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들어 주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들과는 전혀 다른 제안을 내놓으시었다.

적들이 아직 소부대의 력량과 활동방향에 대하여 잘 모르고있는 조건에서 총성을 울려야 마을의 적들과 무산속에 있는 적들을 끌어내다 제놈들끼리 싸움을 붙여놓는것과 동시에 국내에서 활동하던 기본부대가 두만강을 건너 간도쪽으로 빠진것처럼 흔적을 내놓고 인민에게 백두산위인들에 대한 열렬한 흠모심과 혁명에 대한 굳은 신심을 북돋아주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는 2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장지근 중국외교부 상무부부장과 일행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김성기부상을 비롯 한 위무생 일군들과 류룡재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대사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석상에서 상무부부장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명도밑에 조선인민이 사회주의 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고 말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소부대성원들을 모이게 하고 작전전술적문제들을 토의하시었다.

어떤 성원들은 적들을 당장 습격소속하자고 했고 또 어떤 성원들은 신속히 기동하여 국내공작기무를 수행하자고 하였다.

하나 그 의견들은 현재 조성된 정황을 수습하기 위한 신중한 대책으로 되지 못하였다.

얼마 안되는 기동정찰대들을 소모하는것은 쉬운 일이었지만 그렇게 되면 특별경비대뿐 아니라 수비대까지 밀려들어 추격해올수 있었다. 또 다른 방안대로 소부대가 신속히 기동한다고 해도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진출을 논치엔 날뻐는 도저히 파인이 되어 나갈것은 변한 일이었다.

소부대성원들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들어 주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들과는 전혀 다른 제안을 내놓으시었다.

적들이 아직 소부대의 력량과 활동방향에 대하여 잘 모르고있는 조건에서 총성을 울려야 마을의 적들과 무산속에 있는 적들을 끌어내다 제놈들끼리 싸움을 붙여놓는것과 동시에 국내에서 활동하던 기본부대가 두만강을 건너 간도쪽으로 빠진것처럼 흔적을 내놓고 인민에게 백두산위인들에 대한 열렬한 흠모심과 혁명에 대한 굳은 신심을 북돋아주고 있다.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군대, 우리 인민과 함께 혁명을 하는 궁지와 보람을 더 깊이 느끼게 된다고 말씀하시었다.

주조와 인민을 위하여 끝없이 헌신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다함없는 추위의 마음을 담은 축하를 올리시는것은 우리 근대와 인민의 웅대한 본분을 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현지시찰과 현지지도의 길에서 만나신 군인들과 인민들이 자신께 건강에 주의를 돌려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던 일들을 감회깊이 회고하시고나서 그들의 진심을 더 마음속으로 느끼는것이 아니라, 자신께서는 한 나라의 령도자이기 전에 수령님의

우렁우렁하진 음성시 장내에 다시금 울려 퍼졌다.

나는 우리 나라를 세상에 으뜸가는 강성대국으로 만들고 우리 인민이 가장 행복하고 유족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하기 전에는 순조로 휴식을 할수 없습니다. 나는 시련의 고비가 수없이 앞을 가로막아도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하여 변함없이 지퍼올린 선군정정의 불길을 켜고 또 켜고 있을것입니다.

다. 선군으로 우리 조선을 사상에서도 제일, 군사에서도 제일, 경제에서도 제일로 만들어 주리라는 더욱 빛나어나가려는것은 나의 확고한 신념이며 의지입니다.

내 나라, 내 조국을 누리에 더욱 빛내이리!

백두산천출명장의 위대한 신념의 불꽃과 더불어 우리는 더더욱 강성대국의 문이구에 들어섰다.

꽃잎은 2월의 이 불발 우리 근대와 인민의 심장마다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정성에 발맞추어 가이이 휘황찬란한 태양을 앞당겨오고 야말 신념과 의지가 더욱 차넘친다.

유기농법과 농업생산의 발전

지금 온 나라의 농업근로자들이 불라는 애국의 마음을 안고 농사처비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그들이 생산한 질 좋은 기름과 흙보산비료가 협동농부들에 뿌려지고 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도 흙보산비료라고 이 이름도 크나큰 지어주시며 밭에 흙보산비료를 비롯한 유기질비료를 더 많이 내댈데 대하여와 그 실현방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었다. 우리 나라의 농업발전을 위해 몸소 주력에서 시범농장을 꾸려놓으시고 연구사가 되기도 하시고 환경성 포전질을 검토도 걸으시면서 농민들과 허물없이 의견도 나누시며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로고와 심혈은 그 무엇으로써도 다 헤아릴수 없다.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농업생산에 비약적으로 늘이며 유기농법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명도하여주시었다. 오늘 우리 나라의 곳곳에 현대적인 축산기자들이 일떠서고 있다. 축산의 과학적관리방법, 동물양육에 의한 병충해방역방법을 비롯한 선진농업방법과 기술을 농업생산에 도입하고 있다. 그리고 우렁이에 의한 논벼비판리방법, 생물양육에 의한 병충해방역방법을 비롯한 선진농업방법과 기술을 농업생산에 도입하고 있다. 그리고 우렁이에 의한 논벼비판리방법, 생물양육에 의한 병충해방역방법을 비롯한 선진농업방법과 기술을 농업생산에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더욱 발전완성시켜 농업생산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안아와야 한다.

유기농법은 무엇보다도 부침평의 지역을 높여주는데서 효과적인 농법이다.

농작물의 지역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토양조건을 개선하는것이 중요하다. 자연지리학적요인과 농업생산물품의 종류에 따라 부침평의 토양상태는 지대마다 다르며 따라서 요구하는 영양물질도 서로 다르다.

유기농법은 구체적인 토양성분분석에 기초하여 해당 지대별, 필지별로 필요한 화학성분량을 규정하고 흙보산비료와 유기질복합비료, 복합미생물비료 등을 과학적으로 배합하여 농경지들에 베풀기를 요구하고있다. 그리하여 부침평의 토양에서 필수적인 영양물질과 부식질량을 보충하여 토양조건을 훨씬 개선하고 안전하면서도 높은 수확을 거둘수 있게 한다.

복합미생물비료 하나만을 놓고보자. 식물이나 동물의 생명활동에 리로운 작용을 하는 수십종의 토양미생물을 특수한 방법으로 복합배양한것으로 하여 이 비료를 사용하면 토양속에서 복합미생물들이 호산 작용하는 상태로 자리잡고 살게 되므로 토양환경이 개선되고 어느 특정한 미생물이 증식되는 현상이 적어지게 된다. 이런데로 부터 화학비료와 농약을 쓰지 않고도 많은 수확을 낼수 있으며 부침평의 지역이 높아지므로 농촌들에서 적지 않은 기쁨과 노력을 절약하게 된다.

흙보산비료와 유기질복합비료도 후민산을 비롯한 부식질과 여러가지 영양물질이 많이 들어있는것으로 하여 토양의 구조를 좋게 하고 질소, 인, 칼륨, 염소 등과 각종 미량원소들의 함량을 높

여어 농작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영양물질을 충분히 보충해줄수 있게 한다.

유기농법은 농작물의 육종과 비배관리에서도 우월한 농법이다.

농작물의 육종과 비배관리를 잘하는것은 농업생산에 늘이기 위한 선진적요구이다. 유기농법은 도입한 농작물의 생장발육에 필요한 과학기술적요구를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그 과정을 촉진시켜 알찬 수확을 거둘수 있다.

날에 내는 여러가지 유기질비료들은 유기물질을 그대로 식물에 돌려주면서 동시에 추위나 가뭄, 소금기 등 불리한 환경에 대한 건립성을 높일뿐 아니라 생장발육기간을 줄이며 수확물의 질도 개선시킨다. 또한 생물호산의 협조와 공생의 원리를 리용한 우렁이유기농법, 생물농약 등은 농작물의 비배관리에서 병해충의 피해를 막고 많은 노력과 비용을 절약하면서 높은 생산성을 담보해준다.

사리원시 미곡형동농장과 통천군 장산현동농장, 속천군과 운진군, 염주군을 비롯한 전국의 수많은 농장들에서 농업생산에 유기농법을 도입하여 거둔 높은 수확을 보며 농민들은 그 우월성을 뚜렷이 실증하고있다.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거머이 해결하고 우리 나라를 쌀이 넘쳐나는 나라, 쌀이 남아돌아가는 나라로 만들려는것은 우리의 당의 확고한 의지이다.

농업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숭고한 의도를 높이 받들고 유기농법을 비롯하여 생산선진에서 그 우월성이 확증된 선진농법방법과 영농기술들을 적극 받아들여 올해를 높은 일과로 장식하고 질소, 인, 칼륨, 염소 등과 각종 미량원소들의 함량을 높

신묘한 전법이 가져온 통쾌한 승리

당의 위대한 구상과 불굴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강성대국건설의 총공전에 떨쳐나선 우리 근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는 준엄한 항일혁명투쟁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 신묘한 전법으로 적들을 통쾌하게 족치시던 백두의 전설적대장군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어머님은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를 밝히려는 조선인민들의 힘에서는 한치의 드림도 없으시였습니다.》

주제 29 (1940)년 3월 어느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받고 국내에 파견되는 조선인민혁명군의 한 소부대와 함께 국경선의 어느 한 마을에 이르시기를 보았다.

뜻밖에도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진출을 막아보려고 미처날뛰던 일제의 기동정찰대가 마을에 나타났다.

당시 농들은 조선인민혁명군을 잡는다고 하면서 이르는 곳마다에서 수색소동을 벌려

감란을 금치 못하였다.

그이께서 내놓으신 방안이 야말로 소부대가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할수 있게 하는 신묘한 묘술이었고 적들을 감쪽같이 속여넘겨 제놈들끼리 죽일 내기를 하여 기를 꺾어놓는 위력한 유격전술이었다.

사령관동지의 탁월한 군사사상과 독창적인 유격전술을 언제나 같이 연구 학습하고 자신의 가슴속에 새겨넣으신 김정숙동지께서도 그처럼 기발한 정황속에서도 적들을 전멸케 할 기묘한 전법을 내놓으실수 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예견하신대로 통쾌한 일이 펼쳐졌다.

그날 새벽 적들은 조선인민혁명군을 《추적소》해냈다고 자랑에서 불려들어 제놈들끼리 괴투성이 되도록 싸우다가 넘어져 제물에 주저앉고말았다.

백두의 대장군 김정숙동지의 신묘한 전법에 걸려들어 술한 시체만을 남긴 적들은 김정숙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신승기를하는 전법에 또다시 걸려들어 녹아내리고 마구잡이로 죽어갔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명도를 총적하게 받들어나가고있는 우리 근대와 인민에게 백두산위인들에 대한 열렬한 흠모심과 혁명에 대한 굳은 신심을 북돋아주고 있다.

본사기자

축복받은 과학자의 삶을 자랑하라

최첨단을 국가과학원 생물공학이 분원 비약하리!

우리 나라 골지의 첨단과학기술— 생물공학연구기지가 틀림없다. 위대한 선군령장의 승고한 과학중심의 세계를 심장으로 나날이 체형하고있는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 일군들과 과학자들의 가슴은 지금 뚝오르는 감격과 환희로 새차게 끓어오르고 있다. 어찌 그렇지 않랴. 아침에는 꿈결에도 그림연경하는 장군님을 만나보고 오후에는 그이께서 보내주신 수십대의 대형행운풍기를 받아안은 영광의 그날은 불과 한달 전이다. 그 며칠후에는 명당자리의 넓은 부지에 현대적으로 일떠선 훌륭한 건물들을 분원에 안겨주시신 경애하는 장군님.

나라의 첨단과학기술을 위한 그이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드넓은 생물공학연구기지에 잠들 줄 모르는 그리움의 대하를 펼치고 거대한 맹세의 불꽃을 지펴올리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과학기술을 발전시키야 국력을 강화할 수 있고 나라와 민족의 흥성번영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꿈에서도 바라고마찬 소원이었다.

어찌장군님을 모실 날을 기다려 피라는 사색과 탐구의 길을 걸고결으며 생명의 위대한 두려움없이 일한 연구성과도 많이 마련하고 첨단연구기지의 체모에 맞게 실험실들도 번듯하게, 생산기지도 그뿐 하기에 자랑하는 소원이었다. 하지만 그이들이 이처럼 뜻밖에 이루어질 줄 누가 알았랴. 지속되는 강한 추위로 모든것이 명명 얼어붙은 것처럼 추운 날 이른

아침에 경애하는 장군님을 분원에 모시게 된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커다란 기쁨과 함께 한편으로는 괴송스러운 마음을 감할수 없었다. 분원 일군들이 올리는 축원의 인사를 받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먼저 연초소개를 돌아보시었다. 당시의 현행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핌속에 분원이 그 어떤 첨단연구과제에 착수해 마나 해제하는 중점적 집단, 관료있는 생물공학연구집단으로 성장해온 자랑찬 과정에 대한 원장의 해설을 진지하게 들으시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여기에 알려지지 않은 공로자들이 많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이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여러가지 첨단설비들이 그뿐하게 갖추어진 생물공학연구종합생산도입실, 계통연구실, 식물조직배양실, 줄기세포연구실, 유전자조각 식물연구실을 비롯한 분원의 여러곳을 오랜 시간에 걸쳐 돌아보시면서 과학연구사업정형을 구체적으로 로해하시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의 최첨단의 세계를 두려움없이 접경하고있는 이곳 과학자들이 참으로 미덥고 기록하시었다. 부닥치는 예로와 난관을 용감하게 뚫고나가면서 좁은 공간에 유전자재료를 구축하는 기술과 효능높은 항종양면역치료제 등을 연구개발한 훌륭한 과학자들, B형혈액염 O형혈액염으로 전환시키는 기술과 새로 개간한 간직지 면에서 안전하게 농사를 지으면 서도 높은 수확을 내는 내열성벼 종자와 병해충에 잘 견디는 내충성강병이품종 등을 새로 개발

함으로써 나라의 생물공학을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투쟁에서 눈부신 기적을 창조한 이들이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부족하고 어려움이 많은 속에서 담이 안겨준 배짱과 담력, 김일성민족의 자존심과 헌신대 과학기술발전의 핵심기초기술의 하나인 생물공학분야에 대담하게 뛰어들어 유전자공학과 세포공학, 미생물공학 등 나라의 생물공학발전을 위한 기초를 튼튼히 닦아놓은 이들의 열렬한 충성과 애국의 마음, 비상한 창조정신이 무엇보다도 크고 귀중하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긍지높이 말씀드리며 분원일군의 이 야기를 구체적으로 들어주시면서 크게 긍정도 해주시고 세심히 물어 주시었다. 어떤 때에는 전문가들도 미처 생각지 못한 한 마디 표현으로 이들이 개발한 생물공학제품의 본질을 대변에 밝혀 주기도 하시면서 이룩한 투쟁성과를 거듭 높이 평가하시었다. 연구사업에 필요한 온갖 조건을 갖추어주시고 모든 성과를 과학자들에게 고스란히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르는 일군들의 가슴속에는 뜨거운 격정의 파도가 새차게 일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의 과학연구발전시판에서도 분원에서 이룩한 주요연구성과들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면서 흥미있고, 과학자들이 요술사들같다고, 요술의 환상세계에 온것 같다고 하시며 또다시 높이 평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분원에서 여러가지

첨단 생물공학제품들을 만들어 냈을뿐아니라 세계를 뒤흔들고 올라갈 설수 있는 최첨단기술을 소유한 것은 이것 일군들과 과학연구집단이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면서 과학연구성과로 강성대국건설위업을 빛내일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이어 분원의 과학자들이 내놓은 가설과 착상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들어주시면서 이 분원은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며 경제강국을 일떠세우는데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고무해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분원에서 생물공학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나갈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문제를 주저없이 다 풀어주시고 새로운 비약의 날개도 큼직하게 달아주시었다. 훌륭한 일을 한 자식에게 하나를 주면 열을 주고싶어하는 친부모의 심정대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떠나가신지 몇시간만에 분원자들이 한겨울에도 흥분한 방에서 연구사업을 할수 있도록 수습대의 대형행운풍기도 한꺼번에 보내주시었다. 또 며칠후에는 우리 당은 메시지를 기본으로 들어주고가는 전략전술이 있다고, 현시기에는 과학기술을 틀어쥐고나가야 한다고, 이제는 우리가 세계를 디디고 올라서야 할 때가 되었다고 하시면서 생물공학분원을 하루빨리 세계일류급의 생물공학연구기지로 꾸리기를 국공을 결쳐주시고 분원에서 이룩한 첨단연구성과를 하루빨리 현실에 도입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지도 하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거듭 안겨주시는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접할 때마다 이곳 과학자들과 일군들은 뜨거운 눈물로 얼굴을 적시며 그이께서 바라시는데로 생물공학의 최첨단고지로 단숨에 치달아오를 드높은 혁명적열의로 심장을 불태웠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선군혁명명도의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최첨단과제의 앞장에서 온몸을 강그리 바치며 더 높이, 더 빨리 힘껏 달려나갈 결의를 굳히며 생물공학분원 중앙일군이 삼가 올린 편지를 보아주시고 중요한 친필을 보내시었다. 얼마전 생물공학분원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마련하여주시신 현대적인 청사에 새로 자리를 잡았다. 지금 분원은 낮과 밤이 따로없이 불도가나마냥 끓고있다. —더욱 분발하자! 생물공학의 발전수준에 따라 해당 나라의 과학기술수준과 세계적인 경쟁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평가되는 오늘 추세조건의 지위는 우리에게 크게 달렸다. —세계를 향하여 더 높은 속도로 비약하자! 목표는 높고 기세는 총천리다. 위대한 선군령장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속에 첨단과학기술이 가 약동하고있다. 부름과 명령, 믿음과 기대에 찬 눈길들이 생물공학연구기지로 뚫고 있다. 과학자들이여, 목청껏 자랑하라, 그대들이 받아안은 최상의 축복을! 최첨단과제의 길에서 힘있게 떨치라, 선군시대 과학자의 값높은 영예를!

본사기자 려명 희

발은 자기 땅에, 눈은 세계를

첨단을 돌파한 피형전환기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번 현지지도과정에 B형피를 O형피로 전환하는 기술개발과 관련한 보고를 받으시고 개발에 참가한 과학자들의 투쟁기쁨을 높이 평가하시었다. 특히 녀성과학자 조혜순동무를 친히 만나주시고 참 기특한 주무이라고 과분한 칭찬을 하시었다. 피형전환은 현재 2~3개 나라에서밖에 개발하지 못한 생물공학분야의 최첨단기술이다. 실장 리재현, 연구사 김영남동무를 비롯한 과학자들은 보건성의 해당 연구소 과학자들과 창조적협조를 강화하고 비상한 탐구정신과

결사판전의 정신, 영웅적 희생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피형전환기술개발에서 제기되는 모든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갔다. 이 과정에 B형피를 O형피로 전환하는 기술개발에서 팔말내 성공하였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피형전환기술의 마지막목표를 마저 달성할 때까지 박사논문은 집필하는 것도 뒤로 미루었다. 세계를 디디고 올라서겠다는 이들의 강한 민족적자존심과 만만한 과학적자임을 하여 피형전환기술개발을 위한 마지막연구사업에서도 혁혁한 성과가 이룩될것이다.

우리의 낱은사과나무모생산기술

식물조직공학연구집단에서는 지난해에 수많은 낱은사과나무줄기묘를 조직배양하여 대동강수출조합장에 보내주었다. 처음 과학자들은 배양된 파종묘를 가지고 현장에 갔을 때에 눈여겨보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한해가 지나서 그것이 7.5~8.0cm정도로 자라고 손가락만큼 굵은 충실한 줄기로 되었는데에 이르렀다.

아무리 최첨단기술이라고 해도 실현에 도입되어 은을 내지 못하는 의의가 없다는 것이 이들의 믿음이다. 내세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실장 리재현, 연구사 홍윤옥, 리정동무를 비롯한 과학자들은 연구도입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생물공학자들이 인민생활향상을 결정적인 기여를 할수 있는 첨단 연구성과들을 더 많이 이룩할것을 바라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고무이고 믿음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올해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바라시는데로 개발된 줄기세포기술이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실질적 기여하여 우리 식의 줄기세포생산기술을 확대도입하고 조직배양방법에 의한 낱은사과나무모생산기술을 우리 실정에 맞게 확립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여러건의 첨단 연구도입과제들을 신속하게 수행해나갈것이다. 그러하여 최첨단생물공학의 실제적인 연구성과로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건설을 적극 추동해나감으로써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반드시 보답하겠다.

생물공학분원 원장 허평춘

줄기세포 기술 연구 성과 확대

지난 기간 줄기세포연구 집단의 과학자들은 생물공학분야의 첨단기술을 하나로써 재정의학기술로 불러

우선 줄기세포기술을 우리 식으로 연구도입하는데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

연구 성과를 확대

본사기자

희령농업전문학교에서

희령농업전문학교에 가면 교원, 학생들이 즐겨찾는 곳이 있다. 교정의 곳곳에 꾸러진 실습기구들이다. 강냉이로부터 남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종류의 작물들을 재배하는 야외실습포전이며 집짐승들에 대한 해박한 리해를 가질수 있게 잘 꾸러진 축산실습장, 집짐승들에게 쓰이는 각종 식품들의 생육상태와 특성, 여러 부산물들에 대한 상식을 넓혀주는 먹이배배장, 사과나무, 배나무를 비롯하여 과일나무들이 즐지어 늘어선 파수원 등은 학교를 찾는 사람들의 탄사를 절로 자아낸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곳 교원들은 서로의 집체적혜와 힘을 합쳐 품력발전기를 제작하고 기상관측장을 훌륭하게 꾸리였으며 온실도 지어놓았다. 그리하여 교원, 학생들이 계절에 관계없이 필요한 과학연구사업과 실습기를 진행할수 있게 하였다. 학교에서는 해마다 많은 나무들을 심어 학교를 수놓아 좋은 나무들로 둘러싼 수림속의 교정으로 만들었으며 교사의 곳곳에 과학기술지식과 상식자료들을 소지한 직판관들을 배치하였다. 학교에서는 실습실습기구를 꾸러놓는데 그치지 않고 그 운영을 방법론있게 잘 조직하여 품을 들여 꾸러놓은 실습실습기구가 교육의 질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하였다. 이 과정에 학생들의 실천실기능력은 물론 교원들의 자질진척을 높이고있다. 교장 전철호동무를 비롯한 이곳 일군들은 도량비교할실습실과 농약실습실을 비롯하여 실습실들을 현대적으로 꾸리는 한편 교육과정에 예견되어있는 모든 실습을 학교에서 충분히 진행할수 있게 실습기구를 꾸리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강좌장 정금단동무를 비롯한 농학강과 교원들은 전국의 곳곳을 다니며 교육내용에 들어있는 작물들을 많이 수집하는것과 함께 새로운 기후풍토에 맞는 새로운 육종방법들을 연구하여 야외실습포전을 훌륭하게 조성해놓았으며 리효유, 박영준동무를 비롯한 교원들은 가지심기와 씨뿌리기 등 여러가지 재배방법들을 적극

실습실습기구를 꾸러놓는데 그치지 않고 그 운영을 방법론있게 잘 조직하여 품을 들여 꾸러놓은 실습실습기구가 교육의 질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하였다. 이 과정에 학생들의 실천실기능력은 물론 교원들의 자질진척을 높이고있다. 교장 전철호동무를 비롯한 이곳 일군들은 도량비교할실습실과 농약실습실을 비롯하여 실습실들을 현대적으로 꾸리는 한편 교육과정에 예견되어있는 모든 실습을 학교에서 충분히 진행할수 있게 실습기구를 꾸리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더 많은 최첨단연구성과로

아직도 꿈을 꾸는것만 같았다. 과학자로서 웅장할 바를 한 우리들을 그처럼 값있게 내세워주시고 하늘 같은 사랑과 믿음을 가슴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감사의 인사도 제대로 올리지 못한 우리들이다. 사실 우리는 온 나라의 경안인 주제철, 주제설유, 주제비목포를 안아온 거창한 위훈의 주인공들도 아닌 평범한 생물공학자들이다. 그리고 우리들이 거둔 하나 하나의 성과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마련하여주시신 첨단설비들을 마음껏 활용하는 과정에 이룩한것들이다. 하지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번엔 우리 분원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우리들의 연구성과들을 로해하시고 그처럼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며 모든 성과를 고스란히 과학자들에게 돌려주시었다.

더 많은 최첨단연구성과로

이것은 우리 생물공학자들이 인민생활향상을 결정적인 기여를 할수 있는 첨단 연구성과들을 더 많이 이룩할것을 바라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고무이고 믿음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올해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바라시는데로 개발된 줄기세포기술이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실질적 기여하여 우리 식의 줄기세포생산기술을 확대도입하고 조직배양방법에 의한 낱은사과나무모생산기술을 우리 실정에 맞게 확립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여러건의 첨단 연구도입과제들을 신속하게 수행해나갈것이다. 그러하여 최첨단생물공학의 실제적인 연구성과로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건설을 적극 추동해나감으로써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반드시 보답하겠다.

생물공학분원 원장 허평춘



실습실습교육에 힘을 넣어 학생들을 유능한 기술인재로 키워나가고 있다. —사리원 농업대학에서— 리진명 작음

휴대용반도체식페하측정장치 개발

국가과학원 집적회로연구소에서

국가과학원 집적회로연구소의 과학자들이 휴대용반도체식페하측정장치를 개발하였다. 이 장치는 페하측정기술의 세계적발전추세에 맞게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개발된 반도체식페하측정장치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는 어떤 최첨단과학기술이라도 우리의것으로 연구도입할수 있다는 신념과 배심을 가지고 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을 대담하게 진공적으로 벌여야 합니다.》

과학자들이 개발한 반도체식페하측정장치는 현재 페하측정에 일반적으로 리용되고 있는 유리전극식에 비하여 수감압이 깨지지 않으므로 사용에서 안전할뿐아니라 측정속도가 빨라 페하나 온도가 급격히 변하고 흐름속도가 빠른 측정대상에 대해서도 적용할수 있는 일련의 좋은 점을 가지고 있다. 실장 최학민동무를 비롯한 반도체수감압소연구집단의 과학자들은 세계적인 추세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페하측정장치를 우리 식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왔다. 이 과정에 페하수감압으로 값있는 물질을 쓰는 수감압사설계를 완성하고 소련제작공정을 확립하였다. 과학자들은 우리 나라에 마

되어있는 집적회로제작공정에 맞게 수감압사의 구조설계를 합리적으로 하고 높은 정밀도를 요구하는 30여가지의 제작공정을 완성하여 페하수감압자를 제작하였다. 이에 토대하여 측정정확도가 높고 크기의 질량이 작을뿐아니라 생산원가도 매우 낮은 휴대용반도체식페하측정장치를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장치는 먼저 표준용역을 가지고 교정을 한 후에 측정봉을 용액속에 넣으면 몇초후에 페하값이 현시되게 되었다. 개발된 페하측정장치는 여러 단원들에서 용액을 다루는 생산공정의 페하측정과 수질분석, 토양분석 등에 리용되고있다. 본사기자

사랑의 노래로 울려가는 발자욱소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진정한 인민의 사회로서는 우리 사회의 참모습은 모든 사람들이 헌신적연구자로서 되고 이글번호 화약하게 살아나는데서도 찾아볼수 있습니다.》 강성대국 건설추진기동기 등에 솔선동태 면에대한 김광속동무는 이른바침 집을 나섰다. 그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쌍지뱀을 잡고도 일어서지 못했다. 한동안이라든가 제 몸을 일으켜 앉는것이 소원이라던 그가 오늘은 보란만 출근길에 오른 사람들과 나란히 걷고있는것이다. 그의 머릿속으로는 지난날의 일들이 예전처럼 떠올랐다.

은 의로일군들이 자기를 위해 마음쓰며 심혈을 바쳐왔던가. 그러나 쉽게는 수그러들지 않는 자기의 병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있는 광속동무는 총대를 잡고 조국보위초소를 지키기 위한 군관에게까지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광속동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한 영예를 안아달라 하여 잠 못들 생각은 해 하지 못하오.》 불같이 터치는 김일선동무의 목소리였다. 그로부터 며칠후 광속동무는 그의 손에 이끌려 김민유병원으로 향하였다. 지난 시기 하반신마비환자들의 치료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한 김민유병원 신경내과 의로일군들과 한 영예에군인친녀와의 인연은 이렇게 맺어졌다. 《치료도 전두라는데 알아야 합니다.》 본격적인 치료전투가 시작된 첫날, 담당사 최희환동무가 한 이 말이 무슨 뜻인가를 광속동무는 시간이 흐를수록 똑똑히 알게 되었다. 마침내도 여러 시간씩 수기치료, 기능치료를 해주는 온몸이 땅에 걸리는 최희환동무에게도, 치료를 받고나면 슬금슬금

들며 그들은 새로운 치료방법을 연구하여 환자치료에 리용하기 시작하였다. 기적이 일어났다. 열흘만에 환자의 지각장애가 풀리기 시작했고 얼마후부터 손발이 따스한 감을 느끼던 광속동무가 지극한 몸의 한 부분처럼 여기었던 쌍지뱀을 놓고 제법으로 일어섰던 것이다. 몸을 꾸는것만 같았다. 쌍지뱀을 버리던 날 광속동무의 두볼로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또 흘렸다. 평범한 노동자의 딸인 자기를 안아 어엿한 조선인민군 병사로 키워준 고향, 뜻밖의 일로 부상을 입고 고향에 돌아왔을 때에 세상을 떠난 부모들을 대신하여 온갖 사랑을 다 기울여준 고마운 당의 품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이렇게 위대한 장군님을 대가정의 어머니로 모시고 사는 한집안 식솔들의 뜨거운 정성에 받들려 생의 절음마를 다시 매게 되었으니 어찌 고마움의 눈물이 두볼을 적지 않랴. 퇴원을 앞둔 그의 침대머리맡에는 포근한 솜옷이 꾸루, 화장품과 사친첩 그리고 시집 갈 때 가지고 온 레장감까지 정히 포개져있었다. 의사 김정,

담당간호원 강연옥동무를 비롯한 파안의 의로일군들의 지성어린 성의로 마련된것들이었다. 선군시대의 훌륭한 딸이 되라고 따뜻이 고무격려해주시던 김일선동무가 부부라는 부대의 지휘관들이 기울여준 정과 사랑은 또 얼마나 크고 귀중한 것이었는가. 한생애를 위한 장군님을 총대 받들던 이제날 녀병사의 정신으로 살기를 바라며 그가 집에서 치료를 받던 3년동안 매일 아침 치료를 가져다준 강동수력건설련합기업소 설비조립사조소로동자 리명복동무와 강동순군인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광속동무는 화목한 대가정의 딸이었고 그 대가정의 뜨거운 정과 사랑속에 세상에 두면다시 태어난 처녀였다. 하기에 그는 내치를 떠나서 밝던 날 위대한 어머니이신 장군님을 우러러 삼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또 드렸다.

본사기자 방경찬

중국외교부 상무부부장일행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도서관 참관



2. 16경축 재일조선인예술단이 떠나갔다 흥원 금강산가극단 단장 리봉수를 단장으로 하는 2. 16 경축 재일조선인예술단이 21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조선중앙통신]

장지군 중국외교부 상무부 부장과 일행이 21일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도서관을 참관하였다. 그들은 과학기술인재양성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크나큰 은총속에 전자도서관이 훌륭하게 일떠선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열렬실사와 원격강의 실 등을 돌아보았다. 한편 그들은 현재산구역에 있는 중국인전자원공립사모에 화환을 진정하였으며 평양지하철도를 참관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보건부에서는 의약품과 의료기구에 대한 수요와 원천을 과학적으로 다산하여 공급계획을 바르세우고 그에 따라 의약품과 의료기구를 공급하는 엄격한 규율과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올해공공시설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2중 3대혁명붉은기 배천군의약품관리소의 약무일군들이 의약품공급사업에서 혁신을 일으켜

배천군의약품관리소에서 일군들은 즉시 이 약품의 생산을 위한 원료채취사업을 전투적으로 조직하였다. 사실 이 약품의 원료채취는 말처럼 쉽지는 않았지만, 수림속에 들어가 흔적없는 약재를 채취해야 했고 여기에 보조적으로 들어가는 여러가지 물질을 자체로 해결해야만 하는 아홉천 일이었다. 하지만 이곳 약무일군들은 인민들의 건강

증진을 책임진 참된 보건일군의 자각을 안고 열정을 바치고 헌신적으로 노력하였다. 이 약품도 당의 의도에 맞게 엑스화하여 공급하고 이들도 두는 마음이었다. 약재 사리기, 장방동동무들이 약품생산의 앞장에 섰다. 많은 의약품의 원천확보와 공급사업을 중단없이 벌려가야 하는 속에서도 이들은 주저

않지 않았다. 인민들이 바란다면 들우에도 쫓겨 피워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언제나 그들의 심장에 간직되어있다. 이것이 진정한 피를 뚫고 찾아내 엑스화실현의 기쁨을 안아왔다.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이곳의 약품관리소에서는 엑스화되어 사용되고도 편리하고 효과가 큰 이 약품을 많이 생산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본사기자 오현

